



제06호 / '15.6.12(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900원 인상
유급 대체휴무 쟁취
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싱겁게 끝난 7차 교섭

사측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책임하게 교섭 참석

중앙교섭 7차에서 결렬선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9일 7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는 추가제시안을 준비하지 않았고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산별협약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시안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유일교섭단체 조항 개정 문제는 지난해에도 나왔고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 조항은 본교섭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며 “협의회의 의견에 노조가 답변하지 않아서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아무 준비 없이 교섭나온 지부 사용자들

중앙교섭이 결렬된 후 6월 11일 7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이 자리에 나온 사측 교섭위원들은 지부교섭도 결렬되는 것으로 생각한 듯 아무런 준비 없이 자리만 채우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용자협의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라비스테온공조 교섭위원이 불참하면서 아무런 사전논의도 없이 교섭에 참석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차 교섭에서 나온 1차 제시안은 아주 형식적인 제시안에 불과했다. 1차 제시안이니 그러려니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면 7차 교섭에서는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준비했어야 한다. 심지어 중간에 메르스로 인해 한 주 교섭을 쉬면서 2주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사측 교섭위원들 간에 논의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지부교섭을 무책임하게 임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 조기에 원활히 교섭을 타결하지는 사측의 이야기가 진심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중앙교섭 결렬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한 번 더 지부교섭을 열기로 결정했다. 사측이 얼마나 진정성있게 제시안을 마련하는지 한 번 더 두고보겠다는 것이다.

23일 조정신청 들어간다

노조는 23일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15일 중앙위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도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예상된다. 지부도 노조 지침에 따라 23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지금같은 사측의 태도라면 올해 임단투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맞물려 자본의 태도가 아주 가관이다. 6월말 7월초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우리 임단투와 무관하지 않다. 강력한 총파업 투쟁이 다시 한 번 절실해지고 있다.

7차 교섭 속기록

다음주 교섭에선 진전된 제시안 내라

사 :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특히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소독도 부탁하고 출입절차도 강화했는데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 교섭이 벌써 두 번째 사이클이다. 갑작스레 교섭장소로 결정되어서 식당에서 하게 되었다. 교대시간이라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와중에 식당에서 교섭하게 된 점 이해해달라.

노 : 메르스 사태를 보면 국가가 체계도 없고 무책임하다. 그 책임이 개별기업이나 개인에게 오고 있다. 예방하고 막아야겠지만 너무 막연한 상태다.

그제 중앙교섭에서 결렬선언을 했다. 조정신청이 23일 예정이다. 지부교섭은 열어두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교섭을 진행하고 한 번 정도 더 제시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해 구할 건, 사측은 한라공조가 새 주주가 인수하면서 오늘 새 이사진 취임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노측은 북부지역지회장(KDK분회)님이 몸이 안좋으셔서 못오셨다. 양해 바란다.

제시안 있으면 제시해달라.

사 : 사측도 메르스 등 상황에 대처하느라 정신없었고 오늘 한라공조 참석못하시는 것도 교섭장소 와서 알았다. 그러다보니 제시안에 대해 논의를 못마쳤다. 의견 조율이 안된 상황이다. 중앙교섭도 결렬되었고 지부교섭도 중앙교섭 방침에 따라 가지 않았나?

노 : 지부 입장은 중앙교섭 결렬과 관계없이 교섭을 한 주 더 진행하자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투쟁

은 투쟁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와 관계없이 교섭은 진행할 것이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을 준비해달라. 오늘은 준비 못하셨다니 그렇다치더라도 다음 주에는 제시안을 내달라.

사 : 중앙과 연계 안해도 지부에서 의견접근을 고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고하겠다.